

“ESG 기반 업무몰입 플랫폼 재편… 내년 IPO 속도 낸다”

속깊은 人터뷰

황민재 위편 부사장

기업 복지 플랫폼 위편이 ESG 기반의 ‘업무몰입 기반 생산성 플랫폼 워크인게이지먼트(WorkEngagement)’ 전략을 강화하며 내년 기업공개(IPO)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기업 고객을 중심으로 ESG 요구 수준이 빠르게 높아지면서 물류 효율화, 폐기물 감축, 안전보건 강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랫폼 운영 방식이 한 단계 고도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황민재 위편 부사장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기업 복지 시장은 단순 편의 제공에서 벗어나 직원 경험과 생산성을 높이는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ESG 체계를 갖춘 워크인게이지먼트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것이 기업공개 과정에서 핵심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기업 복지 시장에서는 ‘ESG 기반 업무환경 관리’가 새로운 기준으로



위편은 도시락 플라스틱 재활용 프로젝트, PB 상품 포장재 경량화, 사내 카페 다화용 컵 도입 등 친환경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메트로신문



대기업 중심 ESG 요구 급상승
물류효율·폐기물 감축 핵심과제
전기차 전환으로 비용절감 뚜렷

사내 안전보건 요구수준 대폭 강화
행동데이터는 전면 비식별 처리
반복매출 기반 수익성 전환 가능

자리 잡고 있다. 위편은 이에 맞춰 워크인게이지먼트 개념을 중심으로 서비스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 워크인게이지먼트는 직원 경험과 업무몰입도를 높여 조직 생산성을 개선하는 개념으로, 단순 복지가 아닌 업무환경 전반을 데이터 기반으로 관리하는 구조를 말한다.

황 부사장은 “복지 서비스 이용 패턴과 조직 구성원의 근무환경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면 기업의 비용 효율화와 직원 만족도를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다”며 “위편은 이 개념을 국내 기업들의 실무 환경에 맞게 구현 중”이라고 설명했다.

위편은 현재 8000개 고객사와 40만 명의 임직원 접점을 확보하고 있다. 스낵, 조식, 사내카페, 벤딩 등 오피스 복지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반복매출 비중은 올해 기준 90%를 넘었다. 고객 구성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초반에는 스타트업과 IT 기업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금융권, 제조·중공업, 물류 대기업까지 고객군이 확장되며 ESG 요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황 부사장은 “예측 가능한 반복매출

기반은 플랫폼 전환의 토대”라며 “2026년까지 워크인게이지먼트 비중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도록 사업 구조를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물류 효율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위편은 지난해 물류 전문 자회사인 위편풀필먼트를 인수해 전국 6500개 네트워크를 확보했고, 자체 배송망의 경로 최적화와 동선 자동화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 전기차 전환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전기차 전환 후 연간 800만 원 수준의 유투비 절감 효과가 확인됐다”며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이 비교적 용이해 도입 규모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폐기물 절감과 친환경 포장재 전환도 중요한 ESG 지표다. 위편은 도시락 플라스틱 용기 재활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PB상품 포장재의 경량화율을 높이고 있다. 사내 카페 서비스에는 다화용 컵 사용을 늘리는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AWS, 카카오톡 등 일부 글로벌·대형 고객사는 ‘노 플라스틱’ 기준을



요구하며 ESG 항목을 더욱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고객사 ESG 기준이 서비스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수준까지 올라와 앞으로는 친환경 정책을 서비스 설계 단계부터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 관리 강화도 필수 과제다. 위편 직원은 기업 사내 공간에서 진열·이동·보급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안전 리스크가 상시적으로 존재한다. 일부 대기업은 자체 안전보건 기준과 동일한 수준의 대응 체계를 요구하고 있으며 위험 요인 점검, 안전 장비 표준화, 현장 인력 매뉴얼 정비 등이 요구된다.

이에 “HD현대 등은 작업 동선·작업자 보호 기준을 자체 규정에 맞춰달라고 요청하며 ESG 차원의 안전보건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전담 조직 구성과 외부 전문가 진단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터 보안 역시 시장 신뢰 확보의 핵심이다. 위편에드는 직장인 행동·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광고와 샘플링을 제

공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비식별화와 최소화집 원칙이 필수다.

황 부사장은 “행동 데이터는 전부 비식별화 처리해 계약 범위 외 용도로 활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오피스 기반 브랜드 샘플링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음료·건식 브랜드 중심으로 연말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

IPO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꼽히는 수익성 개선도 가시적이다. 위편은 지난해 영업이익률이 1%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별도 기준 6%까지 상승했다. 물류 효율화, 상품 마진 개선, 자동 큐레이션 시스템 도입이 반영된 결과다. 그는 “연결 기준 올해 영업이익 목표는 80억원으로 작년보다 네 배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반복매출이 기반이 되는 구조여서 매출 증가 대비 비용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레버리지 모델’이 자리 잡은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최근 2년간 진행한 5개 인수·합병 M&A에 대한 변동성 우려도 있지만 황 부사장은 “인수 기업 대부분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며 “향후에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유한 기업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인수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워크인게이지먼트 확장을 위한 H·R·SaaS 분야 기업의 인수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황 부사장은 워크인게이지먼트 시장에 대해 “단순한 복지를 넘어 직원 경험과 생산성, 조직 운영 효율을 통합적으로 다루는 개념”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본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영 요소 전반을 위편이 책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며 “ESG를 중심으로 재편되는 업무환경 시장에서 워크인게이지먼트 기반 생산성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SKT-삼성전자, 6G AI-RAN 개발 본격화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 강화 AI 기반 핵심기술 공동연구·실증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6G 이동통신 기술 선도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인공지능 기반 무선접속망(AI-RAN) 공동 연구를 본격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양사는 AI 기반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6G 상용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협력을 추진했으며, ▲AI 기반 채널 추정 ▲분산형 다중 안

테나(MIMO) 송수신 ▲AI-RAN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 등 핵심 기술을 공동 연구·실증한다.

이번 공동 연구는 SK텔레콤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삼성전자 삼성리서치가 주도한다. SK텔레콤은 전국망 운영 경험을 기반으로 데이터 제공 및 실증 인프라 구축을 맡고, 삼성리서치는 AI 채널 추정 모델 개발과 분산형 MIMO 알고리즘 고도화를 담당한다.

AI 채널 추정 기술은 건물·벽 등 장애물이 많은 환경에서도 AI가 전파 왜곡

을 예측·보정해 데이터 전달 정확도를 높인다.

분산형 MIMO 송수신 기술은 여러 기지국과 안테나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대규모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안정적인 초고속 통신을 지원한다. AI-RAN 스케줄러 및 코어 네트워크 기술은 네트워크가 데이터를 전송할 시점과 경로를 스스로 판단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도록 돕는다.

양사는 AI-RAN 얼라이언스에서 지난해부터 기술 협력을 이어왔다. 6월 핀



(사진 왼쪽부터) 류탁기 SKT 네트워크기술담당과 정진국 삼성리서치 차세대통신연구센터장이 협약서에 서명하는 모습. /SKT

란드 총회에서 AI 채널 추정 기술을 공동 제안해 승인받았고, 11월 보스턴 총회에서는 연구 성과를 공개한 바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 제작 단계 단순화

카카오가 이모티콘 창작 플랫폼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를 전면 개편했다고 26일 밝혔다. 변화한 창작 환경을 반영해 제작 편의성과 작업 관리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신규 창작자 유입을 넓히는 데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 이모티콘 스튜디오는 이번 개편을 통해 파일 일괄 업로드, 순서 편집, 미리보기 기능을 제공해 제작 단계를 단순화했다.

임시 저장, 제출 후 24시간 내 취소 기능도 도입해 작업 유연성을 높였으며, 제작 규격을 간소화해 초보 창작자도 쉽게 이모티콘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작업 관리 기능도 강화됐다. 대시보드와 알림 기능을 통해 작업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했고, 제안부터 출시까지 모든 작품을 모아볼 수 있는 ‘내 작업실’ 메뉴가 새롭게 추가됐다. PC·모바일 환경 모두에 최적화된 UI를 적용해 기기 제약도 줄였다.

2024년부터 베타로 운영해 온 미니 이모티콘도 이번 개편으로 정식 도입됐다.

/최빛나 기자

KT-디지털브릿지, AI 데이터센터 협력

KT는 글로벌 디지털 인프라 투자 기업인 디지털브릿지와 AI 서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AI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25일 KT 광화문 빌딩에서 열렸으며, KT 정우진 전략·사업컨설팅

부문장과 디지털브릿지 안태은 아시아·태평양(APAC) 부문 대표가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국내 AI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을 공동 추진하고, 급증하는 APAC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수요에 사전 대응할 계획이다.

디지털브릿지는 미국에 본사를 둔 디

지털 인프라 전문 투자 기업으로, 약 108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운용 중이다. 글로벌 통신사 및 네트워크 기업과 협업체에 왔으며, 최근에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설계 기업 투자 및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 인수를 통해 AI·클라우드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양사는 ▲국내 AI 데이터센터 공동 개발 ▲해외 데이터센터 사업 협력 ▲데이터센터 ESG 기술 협력 등을 중심으로

협업한다.

국내에서는 AI 데이터센터 설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을 공동 추진하고, 양사 데이터센터 간 연결성과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해외에서는 APAC 시장 조사를 공동 수행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KT가 디지털브릿지의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김서현 기자